

계묘년 새해 장수군정 설계

총예산 4600억원 시대… 장수 대도약 원년으로

계 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2023년은 작년 한 해 장수군이 그린 청사진과 쌓아 올린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이다.

지난해 장수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농촌공간 정비사업,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사업 등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올해 국가예산으로 전년 대비 557억원(국도비 등)이 증가한 1.197억원(국도비 등)을 확보하는 등 행보장수 건설 기반을 확고히 해왔다.

“총예산 4600억원 시대를 맞은 2023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최후식 군수는 “군민들께 애속드린 사업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행복 장수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어느 한 분야만의 발전이 아닌 민생, 교육, 복지, 소득,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올 한 해 동심동력(同心同德)의 자세로 모두가 학회·재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건설하겠다는 장수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장수군의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2일 군청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더 좋은 기반·편의시설 군민에게 훌륭이 되는 정책… '살고 싶어지는 장수'

최훈식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 속 사라지는 농촌이 아닌 살아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수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총사업비 60억원, 23년 12억원)을 추진해 농촌지역 물 복지 사라지 대를 해소하며,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농촌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장수군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42억원)을 통해 도시가스 수준의 생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수군에서 취약한 에너지 분야를 개선해 장수군을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어지는 도시로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33억원)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클린 장수’를 만들고, 주차환경 개선사업(87억원)으로 장수중심지 주차장에 조성, 장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군 환경을 개선해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수~장계 국도(19호선) 도로시설개량공사(355억원, 2022~2025)를 통해 군민은 물론 장수군을 방문하는 도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154억원, 2022~2026) 추진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유제시설 이전 및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다음을 복원할 전망이다.

장수군은 깨끗한 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과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군민의 안전까지 믿음직하게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장수군 소재 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불에 탄 면적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민생을 보듬는 든든한 정책도 눈여겨 볼만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지원 대상자 신용등급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의 신용 등급이 4등급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범위를 확대해 전 신용등급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 소외와 차별 없는 교육… “희망을 키우는 장수”

“부모님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이 그동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최훈식 군수.

이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도시의 아들과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기 내 교육예산 2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엔 학교교육지원사업을 12개 사업(7억원)에서 17개 사업(12억원)으로 확대해 기존 교육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5개 신규 교육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신규사업은 기숙사 급식비 지원, 현장 체험학습 지원, 학교특색 교육과정 강화 운영 지원, 장수청소년쉼터 달빛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농촌유화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등이다.

5월부터는 장수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의 교육을 위해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관내 각 교육기관에서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통합·관리해 예산 누수를 차감하고 효율적인 교육 지원체계를 구성한다는 목표이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등

주민들에 편리한 삶 제공

학교특색 교육과정 강화 운영 등

신규 교육사업 발굴·추진

취약계층 희망 복지서비스 제공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일자리 창출 인구소멸위기 대응

군은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교육과정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문화 항유기회 확대 및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책임질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이 신설돼 터키에서 생활하는 장수군 출신 대학생들에게 대해 주거비 지원,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대학생들까지 학업기회를 폭넓게 보장한다.

군은 더 나아가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장수군 청년 발전기금을 조성해 청년의 교육, 능력개발, 창업지원, 복지증진 및 문화 활동 지원, 청년시설 설치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형성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돋고 청년들이 장수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군민이 체감하고 함께 누리는 장수형 공평 복지… 일상에 행복을 더하다

장수군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공평 복지’를 추진한다. 빈틈없고 촘촘한 ‘장수형 복지’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될 전망이다.

먼저, 출산장려금 및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를 통해 자녀의 출신을 경려하고 출산기념의 출산·양육에 대한 가정경제의 부담을 완화해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을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한다. 군은 이를 통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가정 내 양육부담 경감으로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복지 사업자대 제로(Zero)회를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복지신고센터를 운영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연계를 시행한다. 또한 장수군 도움센터를 운영해 민원업무 신청·전달, 시장보기,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전구, 길이끼워 주기) 등 저소득 주민, 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올 하반기에는 만3세부터 만8세 장수군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과 여가활동 및 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 연 20만원의 꿈키움 비우쳐도 지원하며, 1월 중에는 노인 이·미용비 지



을 만하다:

농민들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반값 농기계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기존에는 수요조사비 의해 선정한 5 기종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거나 올해부터는 전 기종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수군은 통합마케팅을 통한 산지 유통 활성화도 추진한다.

농산물 공동출하대체 지원(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공동선별체계를 확립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 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는 장수농산물 및 가공상품의 통합·집중화로 장수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브랜드에 신뢰를 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에 맞는 음면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라는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장수군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으로… ‘문화관광도시’ 건설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청정지역으로 태고적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장수군의 풍부한 자연환경은 최고의 관광인프라이다.

장수군은 청정지역에서 체험을 즐기고 힐링하면서 삶의 풍요를 되찾아 갈 수 있도록 서부 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장수구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유아숲 체험원 등을 추진한다.

최훈식 군수는 “뜬봉삼 생태공원 내 자작나무숲은 관광자원으로써 매우 큰 가치가 있는 숲”이라며 “민2,000여 평 규모에 자작나무 약 2,000주가 심어져 있는 본 숲은 강원도 이남에 조성된 얼마 없는 자작나무 숲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서 관광자원화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수군은 자작나무 아래 꽃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뜬봉삼 생태공원과 연계함으로써 자작나무숲을 장수군의 신규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어 “벽남재 또한 장수를 찾는 아들에게 더욱 알려져야 할 명소”라고 설명했다.

계남면 장인리에 위치한 벽남재는 가운데 위치한 적송림 섬이 투영된 맑은 호수로 보는 이들의 김탄을 자아낸다. 군은 벽남재에 둘레길을 추가로 조성해 다시 가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장수의 소중한 자원을 더욱 알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작년 12월에 개관한 꿈꾸는 예술도서관을 연계할 방침이다. 1999년에 폐교된 장인초등학교에 조성된 문화예술교육전용 시설이 지역문화예술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철린자(총사업비 40억원, 2023년 2억 원)는 방화동지연휴원에 어드벤처 체험시설을 조성해 즐기면서 가족관광수요를 충족하고 사계절 지속 방문이 가능한 공간을 연출한다.

더불어 천연의 계곡을 활용한 한여름 계곡문화축제를 새롭게 개최한다.

여름철 장수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계곡과 문화예술 공연을 융합한 볼거리·즐길거리 제공하고 지역상품권 지원과 숙박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지역특산물 판매 연계도 강화해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예술도시를 만들 예정으로, 장수군은 관광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최훈식 군수 인사말



더 혁신해 행복장수로 가는 길 공고히 할 것

“지난 한 해 새로운 장수를 열기 위해 행복장수 건설에 함께 참여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해는 번영과 행복을 상징하는 토끼처럼 더 높이 도약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등 장수군과 공직자들의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더욱 혁신해 행복장수로 가는 길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장수군의 공직자들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추진해 화합 장수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직자 간담회 실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간담회 추진,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각종 사회단체 및 지역 협의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군민과의 대화,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직접 볼로 뛰는 현장 소통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장수군이 이뤄나가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공직자들이 하나로 화합하여 행복장수 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사업을 심도 있게 다뤄 7개 읍면을 고르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시대에 한발 앞서 대응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장수군과 그 밭길 음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계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